

코스피	2454.48	코스닥	675.84
	(-1.43)		(-2.35)
금리 (연이자율)	2.567	환율 (원/달러)	1402.70
	(-0.040)		(+8.00)

메모리값 폭락, HBM 납품 지연... 삼성전자 '이중고'

D램·낸드 가격, 11월 20%대 하락
중 저가 공세, 메모리값 하락 주도

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지연
캐시카우 제품 부재, 재고부담 악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에 또 한 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이 크게 지연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으로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1.3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기록했던 1.30달러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D램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2분기 조정을 맞았으며, 8월에는 2.9%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는 17.07% 급락했다. 이후 10월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다시 한 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메모리카드와 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낸드플래시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9.80%

하락한 2.16달러를 기록했으며, 낸드 플래시 역시 D램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D램과 낸드플래시 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주요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조정하고 제조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푸젠진화(JHIC)가 구형 D램(DDR4)을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0.75~1달러에 공급하며 점유율을 확대했고, 이는 전체 메모리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소비자용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3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제품군이 부재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HBM 매출 비중이 전체 메모리 매출의 30%까지 올랐고, 전체 실적의 57%가 HBM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10월 컨퍼런스콜에서 HBM3E 8~12단을 양산하고 판매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최대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수요처인 엔비디아와 관련한 확실한 납품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HBM 납품 지연과 맞물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의 재고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돕기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는 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를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이날 삼성과 우리금융그룹의 기부로 나눔목표액 4497억 원의 14.5%를 달성해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14.5도로 시작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 우원식 “10일까지 합의” 촉구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열고
‘민생·미래’ 위해 여야 합의 부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별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계열사 간 합병 가액 산정기준 전면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의견 명시
주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결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등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

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두고 주주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공개된 제도개선안은 ▲비계열사간합병가액산정규제 개선 ▲외부평가제도 개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 등 3가지로 추려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실시간 공시하도록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 육성... 양극화 타개 중산층 시대 열도록 최선”
▲고려대 학생 265명도 ‘尹퇴진’ 시국선언... “대학가 침묵 깨지고 있어” /사진 뉴시스

▲스웨덴 총리 5~7일 방한,尹 대통령 회담... “협력 증진 방안 논의”
▲통일부 “북,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 진행”



▲오세훈 시장 “감액 예산보다 여당 무기력함 더 슬퍼... 분골쇄신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과 엮어보려 해도 연결된 것 없다” /사진 뉴시스

분상제 적용, 분양가 22억에 시세차익 10억 ‘로또 청약’ 출격

(전용면적 84㎡)

DL이앤씨 ‘아크로 리츠카운티’

9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분양나서
지상 27층 8개동에 총 707가구
강남권 전통 부촌에 인프라 풍부
인근 신축아파트 최고호가 33억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국평이 분양가 22억원에 완판(완전 판매)을 기록했던 만큼 청약자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방배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



‘아크로 리츠카운티’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로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다.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포동이나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하기 편하다.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신

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규제 지역인 만큼 최상의 입지에도 분양가는 낮게 결정됐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지난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은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수능 12월 시행, 수시·정시모집 통합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 제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늦춰 12월 시행하고,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도 수능 이후로 통합 실시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대학 중심 입시 일정으로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향후 교육 정책 변화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2일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교육감 제안” 발표문을 내놨다.

현재 고3 2학기는 출결 및 내신성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의 교육과정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교과 교육활동에 참여도가 낮고, 대입 수시·정시 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고교 3학년 2학기 출결과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능을 12월 시행하고, 수시와 정시의 모집 시기도 통합해 대입 전

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정 교육감은 “2학기 성적도 대입에 반영해야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활동 내용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며 “수능 12월 시행으로 학년 말 공백기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본질적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대입 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hjh@



부산 기장군 소재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 전경.

/산업부

‘원전해체 지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산업부, 부산 기장군서 개원식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 해체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원복연)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복연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 해체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청년 쉬었음’ 인구 42.2만명… 1년새 25% 늘었다

한은, 쉬었음 인구증가 배경·평가
자발적 쉬었음 28%, 비자발적 72%
‘구직단념자’ 가능성에 사회적 우려

올해 들어 청년 42만명이 일도 취업 준비도 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쉬었음’ 장기화로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NEET)족(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구직단념자’)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작년 4분기 33.6만명에서 올 3분기 42.2만명으로 지난 1년간 25.4% 증가했다. 이중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로 동 기여율은 이직 기간 1년 이내인 쉬었음 인구에 한정해 산출된 수치다.

쉬었음 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된

활동에 따라 육아·가사, 교육기관 통학, 취업·진학 준비, 연로·심신장애, 쉬었음 등으로 분류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실업률 등 노동시장 슬랙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4.5%(235만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해 보면 육아·가사, 교육·직업훈련, 연로·심신장애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쉬었음이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별로 보면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가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고령층 60세 이상과 핵심연령층 35~59세의 쉬었음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 쉬었음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 3분기 29.5%로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을 취업경험 유무로 나눠 살펴보면, 최근 늘어난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나타난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족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당분간 재고관리비용 증가 해결 힘들어”

>> 1면 ‘메모리값 폭락, HBM…’서 계속

다행히 3분기에는 LPDDR4와 DDR4의 전략적 재고 정리를 통해 비트 출하량을 이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적 발표에서 “전분기 대비 재고평가손 환입 규모 축소와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영향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만큼, 재고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대신증권은 “9월 이후 메모리 피크아웃

현상이 나타났고, 스마트폰과 PC의 사용연한이 길어지면서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라며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에 따른 가격 하락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5년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하드웨어와 메모리 사양의 상향이 요구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 관리 비용 증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연금개혁 동력 상실 위기 “해외 성공사례로 해법 찾아야”

여야,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 전문가들 해외사례 참조 제언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생 지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약속한 연금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세대 간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복잡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적연금을 개혁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0일 종료된다. 정기회의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 구성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의 종료 직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만,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만큼 국민연금 논의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여·야 견해차가 극명해,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세대별 이해관계 차가 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해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는 31.3%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는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20대(47.5%)와 30대(45.6%)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약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앞서 공적연금 개혁을 완수한 스웨덴·일본·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1998년 공적연금의 재정 소진 전망에 따라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를 연금보험료로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을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대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5%로 낮췄다.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일부 줄었지만, 총 보험료율을 높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13.6%였던 보험료율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보험료율을 최대 18.3%로 고정하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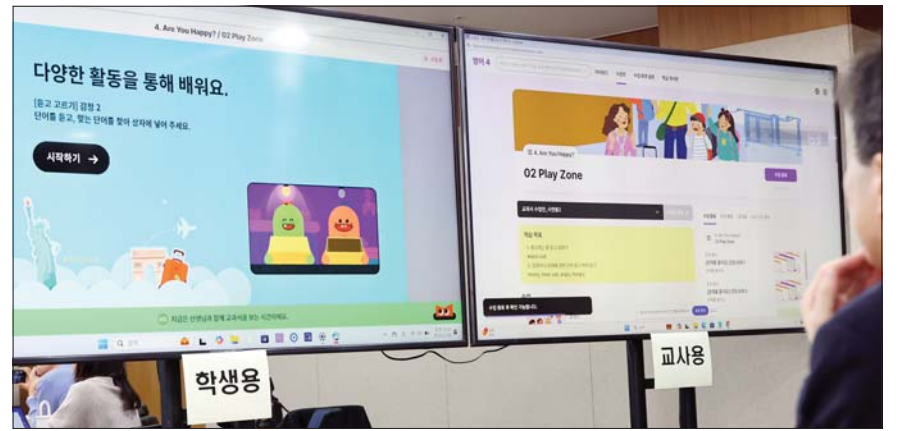
국내에서 도입 논의 중인 자동조정 장치와 유사하지만, 가구 단위의 소득 대체율을 최저 50%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6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적 반대가 만연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금 운용 과정 및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 진영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이 공적연금을 신뢰하게 된 만큼, 캐나다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적 지지 속에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1998년 스웨덴, 2004년 일본, 2016년 캐나다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 나라들의 개혁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된 AI 디지털교과서 실물 시연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 ‘역대 최저’

내수부진 지속... 티메프 사태도 영향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해 온 온라인쇼핑 거래액 또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의 여파도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2845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129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은 올해 4월 10%대, 5월과 6월 7%대, 7월 5%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둔화한 뒤 10월 들어 1% 미만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이쿠폰서비스가 전년 대비 51.0% 감소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이쿠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고, 지난해 10월 증가율(11.4%)이 높았던 저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온라인거래 시장의 움직임도 코로나19 당시 두 자릿수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음식·식료품(17.5%), 음식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의복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간절기 의류 수요가 사라지고, 바로 동절기 의류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의 경우, 내년도 긴 추석연휴 시기 항공권 예매가 10월 오픈된 영향으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식료품(14.3%), 음식서비스(12.5%), 여행 및 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4227억 원으로 4.2%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시 이쿠폰서비스(-40.7%)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식료품(20.8%), 음식서비스(15.9%), 농축수산물(20.1%)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2%), 음식·식료품(14.5%), 의복(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상품마다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서비스(98.6%), 이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백화점업계, 고객 중심 쇼핑공간 새단장

오프라인 쇼핑 가치 재정의 나서 식료품관, 체험형 콘텐츠 등 확장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주요 백화점들이 식료품관 리뉴얼과 체험형 콘텐츠 공간 도입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매출원이었던 패션과 의류에서 부진이 이어지자, 식료품관 및 고객 체험형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불황을 맞은 주요 백화점들이 식료품관 리뉴얼을 진행하고, 콘텐츠 중심의 고객 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쇼핑 공간 재단장에 나선다. 패션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식료품관 및 콘텐츠 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공간 리뉴얼에 나섰다. 지난 2월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를, 6월에는 와인 중심 공간 ‘하우스 오브신세계’를 새롭게 선보였다. 스위트파크는 국내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를 모은 테마파크 형식으로, 하우스 오브신세계는 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공간으로 구성됐다.

신세계는 내년까지 6000평 규모의 식품 전문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5년 3월에는 푸드마켓을, 8월에는 간편 식품관과 카페 등 공간을 새



신세계강남점 ‘하우스 오브신세계’ 전경



현대백화점 ‘가스트로 테이블’ 전경

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의 팝업 전용 공간 ‘더 스테이지’에 이어 센트럴시티 1층 광장의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활용한 전시·체험형 팝업존 ‘오픈 스테이지’를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오는 2026년까지 본점, 잠실, 강남, 인천, 수원, 동탄, 광복, 부산 본점 등 8개 핵심 점포를 재단장한다. 특히 상권을 고려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식품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 수원의 성공을 발판 삼아 송도, 수성, 상암, 전주 등에 쇼핑몰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점도 리뉴얼해 2030년까지 총 10여 개의 미래형 쇼핑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7월 압구정

본점 식품관을 재단장해 ‘가스트로 테이블’을 선보였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중동점 지하 1층 식품관을 새롭게 단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백화점 3사는 콘텐츠 중심 전략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25년 2월까지 중동점 9층 문화홀에서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 ‘퓨처 그라운드(FUTURE GROUND)’를 운영한다.

다만, 식품관 리뉴얼과 콘텐츠 전략이 당장 가시적인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공간’이 중요한 곳인 만큼, 식료품관 리뉴얼과 콘텐츠 중심으로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리뉴얼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적 상승이 단기간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최상목 “전례없는 단독 감액안 철회해야”

(경제부총리)

» 1면 ‘감액 예산안...’서 계속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 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

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식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화웨이 추격, 애플 도전... 삼성, 폴더블폰 리더십 유지 총력

폴더블폰 3파전 개막 임박

삼성, 보급형 라인업으로 시장 방어
화웨이, 5년 만에 기술 자립 성공
애플, 2년 내 폴더블폰 출시 예고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폴더블 폰 시장의 포문을 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으며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도 2년 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이 격화될 분위기다. 특히 화웨이는 폴더블 폰을 출시한 지 5년만에 기술 자립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데다 애플도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폴더블폰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선두자리를 지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화웨이에 내줬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서도 3분기 시장 점유율 56%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화웨이가 35% 점유율로 1위에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왕좌를 되찾은 셈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2분기 조사 결과는 내지 않고 있어 1분기 성적이 직전 분기에 해당한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삼성의 점유율은 70%에서 56%로 감소했으나 1위를 기록했고, 화웨이는 같은 기간 13%에서



7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안팎 2024에서 갤럭시Z 폴드6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구남영 기자

15%로 소폭 상승했다. 아너는 5%에서 10%로 점유율을 두 배로 늘렸고, 1% 미만인던 모토로라와 샤오미는 각각 7%와 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출시한 지 5년 만에 기술 자립까지 성공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 '메이트XT'를 출시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외국 기업에 의존했다. 화면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사용했으며 AP제조와 운영체제는 TSMC와 구글에 맡겼다. 하지만 그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금지 리스크에 올리며 제재에 돌입하자 화웨이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국산으로 바꿨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폰

공급망이 성숙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북미와 서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애플까지 조만간 폴더블 폰 시장에 합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경쟁이 과열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IT매체 BGR은 국내 저명한 IT팁스터 란즈크를 인용해 애플이 폴더블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란즈크는 최근 공급망 소식통을 통해 "애플이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정식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때문인지 삼성이 준비 중인 신형 폴더블 모델의 폼팩터 변화 시점도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은 삼성 갤럭시Z플립 시리즈처럼 가로로 접는 '클립셀' 형태인 거스



화웨이의 3단 폴더블폰 메이트 XT. /뉴시스

로 알려졌다. 그간 애플은 화면 내구성, 주름 문제로 인해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문제를 해결했다. 애플은 특히 폴더블 아이폰을 접었을 때도 일반 바형 아이폰과 두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폴더블 아이폰의 정확한 출시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서 알려진 바로는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의 출시는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시장의 경쟁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애플이 뒤늦게 출시한 신제품도 흥행을 이끌며 시장 선두를 탈환한 바 있다.

실제 애플은 생성형 AI 스마트폰의 후발주자임에도 올해 출하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공개될



아이폰 폴더블폰 예상 이미지. /Tech Town 유튜브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이폰16 시리즈는 물론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까지 적용돼 시장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애플은 올해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낮은 점유율 20%대로 2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폴더블폰라인업을 강화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두께·무게·성능을 모두 개선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내년에도 플립·폴드7 외에도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Z 플립 팬 에디션(FE)' 출시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사피온·리벨리온 합병... 1.3조 가치 AI 반도체 강자 탄생

미국·사우디 등서 가시적 성과 추구 파이토치 생태계 리더십 확보 목표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이 마침내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을 노린다. 합병을 마친 기업 가치는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이 사명 '리벨리온'으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합병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업간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공감대로 성사했다.

합병법인은 그동안 리벨리온을 이끈 박성현 CEO가 단독 대표를 맡는다. 박 대표는 MIT에서 컴퓨터공학(CSAIL) 박사를 마친 귀 인텔과 스페이스엑스, 모건스탠리 등에서 근무한 AI 및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다.

사피온코리아가 기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인 만큼 합병 후 리벨리온은 전략적투자자로 합류한 SK 측과 힘을 합칠 예정이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을 합치고, 리벨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뭉친 만큼 기술 로드맵 달성을 위한 개발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리벨리온의 차세대 AI반도체 '리벨(REBEL)'에 적용된 '칩렛(Chiplet)'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AI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AI 분야에서 대표적인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PyTorch)'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확

보함으로써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향후 3개월 간 리벨리온은 인수 후 통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직 통합과 정비에 들어간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재편이 이미 시작되었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NPU 기업의 합병은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인만큼, 국가적인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가 서버랙 앞에 서있는 모습. 리벨리온을 이끌어온 박 대표는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마친 새로운 리벨리온에서도 CEO를 맡는다. /리벨리온

사명감을 가지고 합병법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청정수소발전, 연간 750GWh 전력 공급 첫발

전력거래소, 청정수소발전 입찰결과 2028년부터 15년간 전기 공급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첫 결실을 대신했다. 오는 2028년부터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를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공급한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2일 '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

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

감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와 수소발전입찰 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750GWh 규모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다만, 나머지 5개 발전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가격·비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입찰 규모 대비 약 12% 수준만 낙찰돼 청정수소 발전 경쟁입찰 흥행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 있다"며 "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인프라 등 제

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입찰시장이 개선될 예정인 바,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있는 청정수소 조달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세상을 바꾸는 금융

스마트한 자산관리까지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쭉~이어지도록

#2 안정된 노후 준비 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간병보험부터

삶의 여유를 더해주는
든든한 연금보험에

복잡한 노후 자산관리를
끝내는 원스탑 은퇴 설계까지

편안한 내일,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준비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든든한 보장부터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KB골드라이프X]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 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2261호(2024.10.10~2025.10.10)**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 이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이사(부활(회력 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회력 회복)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라이프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3 KB라이프타워 | www.kblife.co.kr | 고객센터 1588-3374 · 별도 계약이 없는 한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SM-2410011(2024.10.11~2025.10.10)** **[KB골드라이프X]**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약관 및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KB골드라이프X 담당자(1522-4548)로 문의하시거나, KB골드라이프X 홈페이지(www.kbgoldlifex.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4897-1호(2024.10.08)**, 유효기간 2024.10.08.~2025.09.30까지

KB 국민은행 | KB 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 금융그룹**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침묵... 오는 10일 전 입장 낼 듯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

당원게시판 의혹에 친윤-친한 갈등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 거론 특검 통과 시 분열·당정갈등 격화 추경호 중재... 한동훈 '전략적 모호성'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로 분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무더기로 올렸다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역시 친윤계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

사는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에 한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했고 한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만 마음을 먹어도 특검법 재의결은 쉬운 일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통과가 된다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분열과 당정갈등은 어

느때보다도 심해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친한계로 하여금 특검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친윤계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관련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도 생물이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12월10일(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다"며 "아마 최소한(재표결) 2~3일 전에는 한 대표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진다. 상황을 다 종합해서 그때(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가 계속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지금은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창원지검의 수사와 더해 친윤계의 대응도 한 대표가 지켜보느냐란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원내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친윤이라는 분께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토론회

尹 "배달수수료, 3년간 30% 이상 줄일 것"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정산주기↓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 박차 민간상권 기획자 육성, 자금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품을 주문해놓고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등은 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순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순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인,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업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

野, 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與 "초유의 정치폭행 자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끌고 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규탄했다. /박태홍 기자

李 "경제침체 상황... 적극재정 정책 필요"

"지방소멸 등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



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채우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에너지로 채워질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 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 절반 못미쳐… 예산 삭감 위기

청년 정책금융 상품 흥행 갈려
주택드림청약, 가입자 126만명

도약계좌, 가입유지자 128만명
목표인 304만명 크게 못 미쳐
국회 “예산 과도”… 삭감 요구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 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뎠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

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

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양종희 “생성형 AI 등 활용…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도”

(KB금융 회장)

제6회 KB테크포럼 Beyond Exp
최신 디지털·AI 관련 기술 논의

KB금융그룹은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AI 관련 기술을 논의하는 ‘제6회 KB테크포럼 Beyond Exp’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번 포럼이 AI·디지털 기술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금융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KB금융의 훌륭한 디지털 인재들이 지혜를 모아 ‘사람을 지향하는 기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성형 AI’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는 KB금융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경험(Experience)을 넘어 탐구(Explore)하고 확장(Expansion)하자’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진행된 ‘제6회 KB테크포럼 비욘드(Beyond) Exp’에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KB금융 계열사의 테크·AI·데이터·디지털 부문 임직원 200여 명과 삼성SDS, IBM, AWS, MS 등 파트너 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개발자세션 I (AI·디지털), 개발자세션 II (테크), 파트너세션

으로 진행됐으며, 개발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주요 계열사의 신기술과 디지털 개발 사례가 소개된 개발자세션 I·II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발 프로세스와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 슈퍼앱 전략·임베디드 금융 강화를 위한 API인프라인 KBaaS 등이 소개됐다.

올해 처음 선보인 파트너세션에서는 KB금융과 함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활용시네이션 저감 방안, 생성형 AI 기반의 업무혁신 방법 등을 각 계열사 개발자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개발 관련 질문·답변을 채팅 인터페이스 형태로 보여주는 KB-코더(Coder) 등을 통해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KB금융은 금융 비즈니스의 핵심 역할로 부상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도시정비 6조 수주

현대건설이 ‘신반포2차아파트’,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사업을 각각 수주하며 2024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6조원을 돌파했다.

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조합은 12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8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0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방화3구역 재건축 ▲마장세림 재건축 ▲신반포2차 재건축까지 총 9개 사업지에서 6조 612억원을 수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파격발탁’ 정진완 차기 우리은행장… 대규모 물갈이 예고

우리은행 계파갈등 해소 신호탄
연말 부행장급 물갈이 인사 예측

우리금융지주가 여수선한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56·사진)을 차기은행장으로 낙점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부행장에 오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행장으로 승진해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68년생 행장이 등장하면서 조직내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최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유력 은행장 후보 6명 가운데 가장 젊은 정진완 부행장이 낙점된 것. 현 시중은행장은 물론 우리은행 부행장 중에서도 막내다. 더욱이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부행장으로 승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장 최종 후보에 올라 ‘파격 발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후보는 이달 중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자격요건,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최종 선임될 경우 내년 1월 취임해 2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 후보는 은행생활 30년 중 26년을 영업점에서 근무한 은행 내 탁월한 ‘영업통’이다.

우리은행이 미래먹거리로 기업금융을 택한 만큼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높은 정 후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은행장 인사는 우리은행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 해소를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19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돼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일은행 출신 정 후보의 입행 시기는 1995년이다. 현재 우리

은행 내부 부서장과 지점장급들 중 다수가 1998년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인 만큼 정 후보 이후에는 통합세대 출신 은행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를 시작으로 임종룡 회장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연말 부행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를 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내에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만큼 내부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은행 출신에 따라 영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은 영업이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설비 대규모 투자... 관세장벽 넘는다

美 시장 통해 수익성 개선 모색
3.2조 투자... '솔라허브' 구축
"주요 시장 선도적 입지 강화"

한화솔루션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희망을 걸어 수익성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3분기 매출 2조 7733억원, 영업손실 810억원, 당기순손실 38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하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3.5% 늘고 영업이익은 24.8% 개선됐다. 순손실은 17.5%로 확대됐다.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1조 1525억원, 영업손실 410억원을 기록했다. 개발자산 매각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의 수익성



한화솔루션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개선 등에 힘입어 분기 적자 폭이 직전 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해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목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500GW(기가와트)인 반면 중국 업체가 600GW(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한화솔루션 등이 생산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200GW가량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솔루션은 중국 업체의 공급과잉 영향이 비교적 적은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 카터빌에 총 3조 2000억원 규모를 투자

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내 상황이 바뀌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대규모 투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솔라허브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가치사실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생산하는 통합생산단지로 구축된다. 모듈을 시작으로 잉곳, 웨이퍼, 셀 공장이 차례대로 가동되면 한화솔루션은 북미 최초로 태양광 핵심 가치사슬을 현지에서 두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신규 공장의 절반가량이 잉곳,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는 만큼 단순 환산하면 3750억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올해 연간 8.4GW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량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8.4GW는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생산능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다. 미국 기준으로 130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통해 내년 미국 태양광 모듈 수요의 25%를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배척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화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은 제조 능력 증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꾀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전력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상황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카터빌 공장 완공 등 기존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5m 전장에 1.8m 전고... 실내 공간 '와우'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현대적 디자인에 뛰어난 기능성 갖춰
6000만원 중반대... 패밀리카 제격

'넓은 실내공간과 다양한 편의기능 그리고 특별함까지.'

가족단위 이동이나 일상적인 주행을 고려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혼다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내놓은 대형 SUV 파일럿이 앞서 언급한 기능을 두루 갖춘 담백한 모델이다. 8년 만의 풀체인지를 거쳐 4세대로 진화한 파일럿은 실내 공간과 편의 장치를 대거 적용해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혼다코리아가 지난 9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 대형 SUV '파일럿 블랙 에디션'을 시승하면서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우선 첫 느낌은 정통 SUV 스타일의 심플하고 파워풀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혼다 SUV 라인업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전면에는 검정 색상을 적용한 그릴 바와 전면 범퍼를 적용해 세련되고 깔끔해졌다.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로 웅장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강조했으며, 도어 하단 가니쉬(장식)와 후면 범퍼 하단부, 도어 미러와 몰딩까지 모두 검정색으로 통일감을 더했다. 또 전후면에는 블랙 에디션 전용 엠블럼을 적용해 블랙 에디션만의 정체성이 느껴졌다. 실내 공간도 블랙 에디션만의 독창적인 올블랙 및 레드 컬러를 조합해 통일감을 줬다. 나만을 위한 특별함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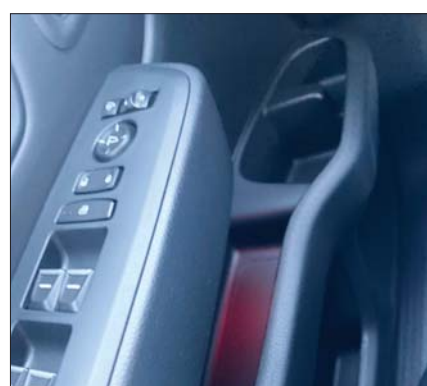
파일럿은 진가는 실내공간이다. 5m가 넘는 전장과 1.8m의 높은 전고를 확보함에 따라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넓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주행모습.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2열 폴딩 모습.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문 수납공간.

은 공간에서의 안락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 특히 2열 가운데 시트는 탈거가 가능해 탑승자의 성격에 맞출 수 있다. 탈거된 시트는 트렁크 하부 공간에 보관하면 된다. 3열은 177cm 신장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했다.

또 앞뒤 문쪽에는 크고 작은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적용해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음료나 물병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건을 크기에 맞춰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27L로 이전 세대와 동급 사이즈를 확보했으며, 3열 시트 폴딩 시엔 1373L의 공간을 제공한다. 2열 시트까지 접으면 2464L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해 차박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주행 성능은 초반 가속력은 반박자 느리게 속도가 붙지만 일정하게 밀어붙

이는 힘이 매력적이다. 최신 4세대 V6 3.5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짝을 이루는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89마력, 최대토크 36.2kg.m의 나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팰리세이드보다 큰 덩치를 갖추고 있지만 고속 구간에서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고속 구간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했다.

연비도 매력적이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천안까지 왕복 약 250km를 주행한 결과 실 연비는 10.2km/L로 공인 연비(8.7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은 부가세 포함 7090만원이다. 국내 대형 SUV 폴업선 모델의 가격이 6000만원 중반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은 패밀리카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모델임은 틀림없다.

/양성운 기자 ysw@

STX, 페루에 6000만달러 규모 장갑차 공급

육군 조병창에 '백호' 30대 공급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페루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STX는 페루 육군 조병창(FAME S.A.C.)과 약 6000만달러(약 830억원)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STX 매출액의 약 9.17%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페루 방산 시장에서의 STX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본 계약은 지난 10월 24일에 체결되었고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으로 공식되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다.

STX는 이번 계약을 통해 페루 육군 조병창에 현대로템의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이번 성과는 STX가 지난 5년간 페루 육군 조병창과 긴밀히 협력해 이룬 결실로, STX의 국방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STX는 페루 방산 시장에서 큰 매출을 기록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이어 후속 물량과 관련된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장비 공급과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STX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X 관계자는 "페루에서의 방산 사업을 토대로 STX만의 독보적인 방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공개

내년 1분기 중 출시 예정

제네시스의 럭셔리 중형 전동화 SUV가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이하 GV70 전동화 모델)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해 첨단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2025년 1분기 중 GV70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위)외장 (아래)실내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상세 가격과 사양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AI 유료화 논란 중심에 선 공공성 개발비 상승 vs 정보 평등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접근성 논란

정보 독점 우려·공익성 논란 심화
머스크 "오픈AI, 비영리 유지해야"
오픈AI "자본 필요... 영리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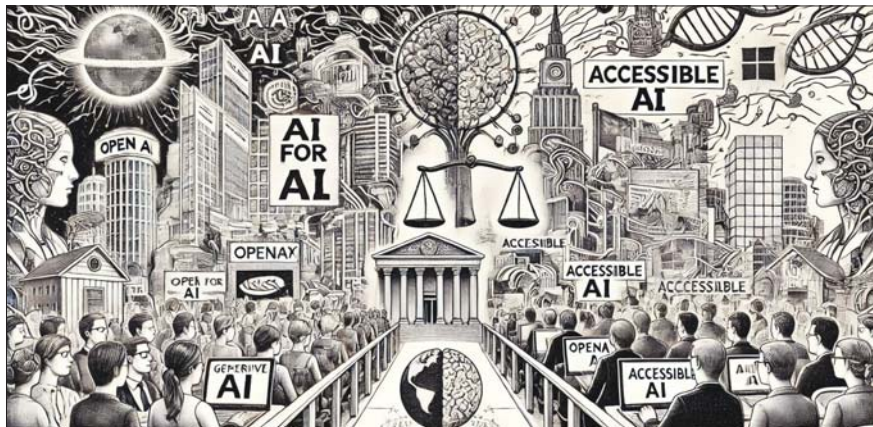
전 세계 산업과 개인의 삶을 뒤흔든 생성형 인공지능(AI).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빅테크 기업의 산물인 이 기술은 과연 완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정보가 곧 생존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야 할까?

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측 변호인이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원고와 대응은 오픈AI가 초래할 위협을 막기 위해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이 유일한 구제책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에도 북부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MS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오픈AI의 전통적인 영리법인 전환이 본격화 하면서다. 영리법인 전환을 선언한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는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자본이 필요한 상태"라며 "영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심은 오로지 자금 조달이라는 목표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주장은 비영리 법인단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일론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빅테크 기업의 AI 소프트웨어의 공공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보여주는 이미지.

체로서 출발한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챗GPT 등 주요 AI 소프트웨어가 이익추구를 위한 상품으로써 일반 개인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머스크의 주장은 빅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챗GPT-4, 코파일럿(Copilo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빅테크 기업들의 전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제작된 AI 소프트웨어는 최근 산업계 뿐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챗GPT 마스터 클래스를 론칭하고 응답 품질을 최적화 하는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스트캠퍼스 또한 약 20개의 챗GPT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를 영원히 무료로 대중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토대가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훈련과 사용과 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심지어 개발 비용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2024년 9월 기준 연 매출 2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AI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으로 연 70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 지난 1월 IE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는 2012년 이후 3~4개월 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챗GPT 등 주요 AI 소프트웨어의 무료화 혹은 부분 유료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접근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지현 SK mySUNICIO는 최근 출간한 'IT트렌드 2025에서'에서 "현재도 미래도 AI를 활용해 일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면서도 "세상은 AI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나뉠 것이고 후자는 AI를 사용하는 자로 인한 대체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한국은행 측도 AI 보고서를 통해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의 근로자 수를 더한 결과 국내 취업자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 수의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I 활용 능력이 곧 자신의 일자리와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전 유료가 됐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속련도 또한 그럴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김지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출 확대

산업부와 '칠러' 수출 협력

LG전자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Chiller)'의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LG전자 칠러 공장서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재성 LG전자 ES(Eco Solution)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며, 이어 칠러 생산라인을 시찰한다. ES사업본부는 2025년 조직개편에서 HVAC 사업을 기존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사업 본부에서 분리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인 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우리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냉각산업을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기조속에서 이뤄졌다. LG전자와 산업

부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안 장관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는 올해 데이터센터 3대 핵심 수출 인프라로 ▲냉각 시스템 ▲고대역폭 메모리(HBM) ▲전력 기자재를 선정하고 업계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LG전자는 해외 데이터센터 냉각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계 내 적극적인 협업도 제안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규모는 2023년부터 연간 10.9%씩 성장해 오는 2030년 4373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열을 관리하는 냉각시장은 오는 2030년 172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

/구남영 기자

수입차 구매 찬스!... 연말 프로모션 돌입

할인·무이자 할부·추가 혜택 총집합

국내 수입차 업계가 연말 특수를 맞아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업계가 연말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캐딜락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다.

캐딜락은 고객 수요가 높은 에스컬레이드(ESV포함), XT6, CT5-V 블랙윙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현금 할인 ▲무이자 할부 ▲선수금 및 보증금 현금 지원 등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구매 옵션, 추가 보증연장(1년/2만km), 추가 현금 할인 지원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에스컬레이드(ESV 포함) 구매 시 보증연장(1년/2만km) 혜택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고객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1000만원 할인 ▲36개월 2.0% 저금리 할부(선수금 30%) ▲60개월 4.6% 저금리 리스(보증금 0%) ▲선수금 또는 보증금 1000만원 지원(제휴 할부 혹은 리스 이용 시) 등의 구매 옵션을 마련했다. 일부 에스컬레이드 모델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100만원 추가 현금 할인 혹은 추가 보증연장(1년/2만km) 혜택 중 한 가지가 추가로 제공된다.



캐딜락 CT5-V 블랙윙.

XT6는 ▲300만원 할인 ▲36개월 2.7% 저금리 할부(선수금 30%) ▲36개월 3.0% 저금리 리스(보증금 30%) ▲선수금 또는 보증금 300만원 지원(제휴 할부 혹은 리스 이용 시) 등 구매 옵션을 제공한다. CT5-V 블랙윙은 ▲1500만원 할인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0%) ▲36개월 1.6% 저금리 리스(보증금 30%) ▲선수금 또는 보증금 1500만원 지원(제휴 할부 혹은 리스 이용 시) 등의 구매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코리아도 연말 차량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구매 시 400만원 유류비 지원 또는 무이자 할부 중 선택 가능하다. 어코드 터보와 CR-V 하이브리드 2WD는 각각 350만원, 25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받거나 무이자 할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고객가치·차별화·기본기로 지속 성장”

LGU+, 흥범식 신임 CEO 첫 메시지
품질·안전 기반으로 미래 비전 제시

흥범식 LG유플러스 신임 CEO(사진)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고객가치, 차별적 경쟁력, 기본기 등을 강조하며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 의지를 나타냈다.

2일 흥대표는 LG유플러스의 공식적인 첫 출근일을 맞아 ‘오늘보다 나은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했다.

이메일에서 흥대표는 “LG유플러스를 여러분과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니 벅찬 설렘과 함께 커다란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현재 각 조직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지속성장에 나



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고객가치 창출 ▲차별적인 경쟁력 ▲품질·보안·안전과 같은 기본기를 꼽았다.

흥 대표는 “경쟁을 바라보면 2등을 할 수 있지만, 고객을 바라보면 1등을 할 수 있다”며 “고객 관점으로 보고, 고객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필요(need)까지도 찾아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객군과 사업군을 세분화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선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차별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흥 대표는 “차별적 경쟁력은 작은 성공체험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진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공략해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

리면서 품질과 같은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코어가 탄탄해야 한다”며 “기본기가 단단해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흥 대표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조직, 어떤 자리에 있는 유플러스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한데 뭉쳐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을 더 만족시키면 우리의 미래는 보다 더 밝아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흥 대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출해온 성과들이 힘을 받아 더 배가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각,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며 첫 인사를 마무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네이버, 체험형 프로그램 컬렉션 선배

네이버가 오프라인 체험형 프로그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색 컬렉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는 공예 체험, 과학 체험, 역사 탐방 등 체험·클래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신설된 프로그램 컬렉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날짜, 참여 연령, 카테고리 등 기본 필터부터 체험복 제공 여부, 실내·실외 진행 등 프로그램에 특화된 필터를 활용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모아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LG HelloVision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기준금리 인하·주주환원 확대 등 증권株, 중장기 성장 가능성 ‘주목’

금리인하로 낮은 조달금리 등 도움
삼성·NH투자증권, 밸류업 모멘텀 높아
4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늘어날 전망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내년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데다 밸류업 기대감과 해외 주식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증권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KRX증권지수가 최근 한달간 1%가량 하락했다. 최근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증권 업황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통상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유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사이클은 채권평가 이익 확대뿐만 아니라 낮은 조달금리도 기업금융(IB), 리테일영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증권업 호황기였던 코로나19 당시만큼은 아니겠으나 높은 조달금리와 P/F총당금 부담을 덜어낸 실적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주들의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모멘텀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과거 주주환원보다는 성장에 자본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여유자본을 재투자자가 아닌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제고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돼 있는 바 주주환원 확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

다봤다. 특히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꼽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경우 그룹사와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앞서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에서 중장기적으로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점진적 주주환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NH투자증권은 이달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의 4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 연구원은 “10월, 11월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추세를 고려 시 4분기 양호한 수준의 해외주식 수수료가 예상된다”며 “커버리지 증권사 중 해외주식수수료 민감도가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며 향후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위그룹 참여에도... ‘밸류업 ETF’ 성과 저조

공시기업, 총 60곳... 예고공시 26곳
삼성·SK·현대·LG 등도 공시 완료
ETF 12종 한 달 수익률, 평균 -5.07%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국내 재계서열 상위 10대 그룹 중 4개 그룹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며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밸류업 관련 상품의 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밸류업 ETF’는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예고 공시를 한 26곳을 더하면 총 86개 기업이 밸류업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 2621개 중 3.28%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 29일 증가 기준 본 공시와 예고 공시를 한 기업들의 시총은 755조 9847억원에 달해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총인 2011조4214억원 중 약 37.58%에 달한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으로 분류되는 코스피 상장 기업 10개 중 4개가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

신세계 ▲CJ 중 SK, LG, 현대자동차, 롯데가 밸류업 공시까지 완료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시총의 75.94% 차지하고 있으며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4개 기업은 전체 시총에서 3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초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과는 저조하다.

밸류업 ETF 12종의 상장 이후 한 달(11월4~29일) 수익률은 평균 -5.0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5.14%)보다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밸류업 ETF 중 패시브형을 채택한 SOL 코리아밸류업TR의 수익률이 -5.72%로 가장 낮았으며, KOSF 코리아밸류업이 -5.17%로 패시브형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임에도 가장 성적이 높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개 대기업의 밸류업 참여는 고무적인 성과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시총이 가장 큰 그룹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만 내놓아 어렵다”며, “밸류업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가치 제고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트럼프 수혜’ 공모펀드, 수익률 1위

우주, 금융 펀드 유형서 수익률 1위
로켓랩, JP모건 체이스 종목 등 편입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편입 비중을 높인 공모펀드 2종의 수익률이 동일 유형 펀드 중 1위를 기록했다.

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C-e 클래스)는 6개월 수익률 50.9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의 평균 수익률(6.28%)을 크게 압도하며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웰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S-R 클래스)도 같은 기간 15.68%를 기록해 해외 금융 펀드 유형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는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전통 기업 및



떠오르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데이터 기반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석으로 비상장 기업인 SpaceX의 파트너사에도 투자하며 혁신 기업 성장에 대한 간접적 노출도 추구한다. 22일 기준 주요 편입 종목은 ▲로켓랩(Rocket Lab) USA(8.33%) ▲록히드마틴(6.81%) ▲플래닛랩스(6.20%) ▲조비에베이션(4.78%) ▲인튜이티브머신스(4.61%) 등이다.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는 이전 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위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사 및 민간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웰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는 글로벌 금융 산업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표 투자은행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2일 기준 해당 펀드의 주요 편입 종목은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7.67%) ▲버크셔 해서웨이(5.75%) ▲뱅크오브아메리카(5.14%) ▲웰스파고(4.75%) ▲골드만삭스그룹(4.55%) 등이다. 한국투자웰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 운용역인 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부서장은 “트럼프는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후에는 자본 요건을 낮춰 금융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



KRX-IDB, 중남미 자본시장 역량강화 초청 연수 한국거래소(KRX)는 서울사옥에서 미주개발은행(IDB)와 협력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KRX-IDB, 중남미 자본시장 역량강화’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 등 8개국 자본시장 관계자 15명이 참여하며, 중남미 지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의 성공적 운영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전문가 강의 및 실무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SOL 美AI 소프트웨어 ETF’ 순자산 500억

한 달 만에 순매수액 300억 몰려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의 순자산이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300억원 이상 몰린 결과다. 지난 10월 말 152억원이던 순자산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미국의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수익성 우려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AIB2C(기업과 개인의 거래) 소프트웨어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실적기반의 주가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실적을 기반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팔란티어, 오라클, 서비스나우, 페어아이자 등은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모멘텀을 내내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는 AI소프트웨어 분야별 1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장점으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AI 사이클 변화 대응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는’ SOL 미국AI 시리즈’의 두 번째 상품으로 지난 5월 상장했다.

/신하은 기자

iM증권, 영업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 마무리

영업점, 21개 → 11개로 통폐합
희망퇴직 통해 경영효율화 추진

iM증권은 영업점 절반을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고강도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iM증권은 2023년말 21개 영업점을 올해 12월 11개로 통폐합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영남권 중심의 과다점포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과 관리자산으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WM사업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점포 통폐합과 함께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점포 통폐합과 함께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지난 10월 1차 희망퇴직 34명과 11월 추가 희망퇴직으로 총 5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리테일 부문에서는 약 20%의 인력 감축에 따른 관관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통폐합 영업점은 거점별 메가센터 모델로 전환해 4~5명 단위의 자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영업팀을 운영한다. 고객들에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iM증권은 점포와 인력 슬림화, 일하는 방식 및 제도 개선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전략적인 점포 운영으로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리테일부문을 2025년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

내년 초 '나비엔 매직' 론칭... 주방가전 글로벌 기업 도전장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주방기기 사업 확장을 위한 '나비엔 매직'을 내년초 본격 출범하며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했던 SK매직의 가스·전기 쿡탑, 전기오븐 분야를 인수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동나비엔이 난방·온수, 냉방·공조, 스마트홈 등에 이어 주방가전 시장 진출까지 예고하면서 '생활환경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경동나비엔이 북미, 러시아, 중국 등에도 온수기, 보일러 등을 대거 수출하고 있어 향후엔 관련 판매망을 통해 'K-주방가전'의 해외 추가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주방기기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경기 평택공장에 설비 이전·증설 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전기쿡탑과 전기오븐, 가스쿡탑 생산을 위한 일부 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했고 현재 공장



경동나비엔이 내년 초 '나비엔 매직'을 론칭하고 주방기기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SK매직 가스·전기쿡탑 등 인수 경기 평택공장 설비 증설 막바지 작년 매출액의 68% 해외서 거둬 향후 주방기기 글로벌 진출 기대

심사와 제품별 안전인증 양수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안에 인증을 끝내고 '나비엔 매직' 론칭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5월 SK매직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투입해 주방기기 영업권을 인수한 바 있다. 지금도 영업 총판 형태로 SK매직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판매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자사의 주방기기 전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쿠팡 등 온라인 판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 외에 네이

버 스토어 등으로 판매 채널도 넓힌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비엔 매직 출범 이후 직접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선 경동나비엔이 A/S를 진행한다. 물론 기존 SK매직 제품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1조2043억원의 매출 가운데 전체의 67.6%를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만 660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3897억원)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멕시코에 각각 법인을 두고 'K-난방기'로 시장을 꾸준히 넓혀 온 결과다.

주방기기 진출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경동나비엔은 냉방기기도 새로 선보인다.

현재 자체 개발 중인 콘텐츠싱어어컨은 냉방, 환기, 공기청정, 제습 등 복합 기능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특히 경동나비엔의 콘텐츠싱 기술과 지역난방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대비 42%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자회사인 경동에 버린을 통해 후드 전문 업체 '리베첸'의 자산을 인수하며 기존에 판매하던 '3D 에어후드'에 더해 주방후드 라인업도 강화했다. 이처럼 주방기기 사업에서 소비자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이유는 쿡탑과 후드, 환기청정기를 연계해 요리매연 등의 유해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은 "올해 내로 SK매직의 영업권 인수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나비엔 매직'을 성공적으로 론칭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주방기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고객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9535억원, 영업이익 988억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순항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인니 최초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 개소

이노비즈협과 ODA방식 추진 이룬·실습장 보유... 전문인력 양성 '韓 製조혁신 성과 해외이전 첫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위치한 비누스대학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열었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험이 풍부한 국내 공급기업들의 IT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 현장 공정개선과 장비 고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이론교육 전용 강의시설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과정 및 운영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초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다. 향후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팩토리에 적용되는 솔루션의 이해, 우리나라 구축사례

소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 내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솔루션 상시 전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인 만큼 공급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수 사업은 선진 IT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달성한 우리의 제조혁신 성과를 해외에 최초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혁

신과 나아가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에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센터가 관련분야 인재육성의 역할을 넘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스마트기술을 확산하는 기지로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세이프온 3종 출시

귀뚜라미가 성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세이프온(SAFE On) 일산화탄소 경보기' 3종을 출시했다.

2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세이프온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책임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KC 인증)을 획득해 신뢰성을 공인 받았다. ▲배터리 타입(KGD 500B) ▲플러그 타입(KGD 500) ▲플러그 일체형 타입(KGD 30P, KGD 600P) 3종으로 구성돼 가정뿐만 아니라 캠핑장, 텐트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ESG 경영' 美 LACP 대상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서 만점

CJ대한통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최근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최한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Spotlight Awards)'에서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라이트 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로,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업 및 기관에서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어워즈에서 CJ대한통운의 보고서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내용 ▲디자인 ▲명확성 ▲

적합성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CJ대한통운은 대상 수상 요인으로 공시범위 확대, 친환경 경영 등 전년 대비 향상된 보고서 콘텐츠를 꼽았다.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해 보고 사업장 범위를 전년도 본사에서 올리는 본사 포함 총 14개 연결종속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어 기후 및 생물다양성 공시 강화 차원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재무영향도 등을 공개했다.

신규 콘텐츠를 통한 친환경 경영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CJ대한통운은 국제 기준 중대이슈 리스크와 기회 분석 내용을 새로 공개하는 한편 친환경 비즈니스 혁신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임팩트 스토리' 코너를 신설했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호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달 29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개최한 신입직원 임용식에서 신규 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

6일까지 일주일간 연수 후 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하반기 31명의 신입직원을 뽑고 임용식을 가졌다. 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진행된 신입직원 선발은 행정사무일반 28명, 행정사무채권관리 1명,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고졸 인재 등을 두루 선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전문직

경력직원 3명도 채용을 끝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했다. 신입직원 31명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 연수과정에 참여한 후 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공단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단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SGC솔루션 '냉장고 리턴 챌린지' 5일까지 체험단 모집

SGC솔루션이 글라스락 공식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채널에서 오는 5일까지 '냉장고 리턴 챌린지' 체험단을 모집한다.

2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체험단 모집은 냉장고 정리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리밀폐용기와 냉장고 텐데이블을 통한 냉장·냉동고 정리 및 공간 활용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체험단 신청 방법은 글라스락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채널에서 구급품을 통해 냉장고 정리에 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각 채널별 총 20명을 선발해 '모듈러', '퓨어 샌드핑크' 등 글라스락 유리밀폐용기와 냉장고 정리 테이블 구성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AI 냉각시스템, 수출 주역으로 육성 R&D 1300억 투입해 기술력 강화

산업장관, LG 평택칠러공장 찾아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육성 박차
연말까지 3500억 수출보험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을 수출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 기지로 꼽힌다. 칠러는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는 장치다. 액침냉각은 서버 등 장비비를 특수 액체에 담겨 냉각하는 기술을 뜻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칠러 제조사 중 유일하게 대용량 공랭식 칠러에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을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은 칠러 내부의 고속 회전 압축기 모터 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면서 회전시키는 첨단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기존 급유 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어링 방식에 비해 소음과 에너지 손실이 적어 차세대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부는 AI 반도체, 전력 기자재, 냉각 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활용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를 육성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칠러와 향온습기 등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즉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열 관리와 서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며 “기업들이 실적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 관리, 실증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총 18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사업 운영현황·모니터링 결과 공유

고용노동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일 2024년 제3차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사업의 운영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에 대응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목표 대비 97%인 4만6000명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 청년은 원하는 직무 경력을 쌓기 어려운데 실전 같이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은 우수 인재 탐색·확보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직무교육 내실화 등 의견도 함께 제기되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일경험 희망 직무를 조사한 결과, 경영·사무, 정보기술(IT) 직무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회계 직무는 올해 지원 규모 대비 청년 수요가 높게 나타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양곡법 시행 부작용 우려 근본·구조적 대책 준비 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달 중 농업·농촌 개혁방안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양곡법·재해대책법 등의 이른바 ‘농업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 측이 주요 내용과 및 문제점, 정부의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정의 근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등 농업 4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일자리 창출, 노동법·제도 유연화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본관 3동 1층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상공회의소와 시흥상공회의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산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시장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여력도 생



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에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고객사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연한 법·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근간은 노사법치”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대환 기자

녹색산업 인재 양성... 특성화고 5곳 지정

환경부, 5년간 매년 2억 지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 등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

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환경분야 자격 취득 외에도 기업 연계 현장 연수, 현장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입사서류 작성, 모의 면접 및 지도 등 취업 지원을 받는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을 위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중남미 시장 겨냥... 韓 기업 진출 전략 강화

산업부,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는 인구가 약 6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한 548억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한 97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상호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일형 - 신성록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부산상공회의소, '에어부산 지역 존치 논의' 촉구 목소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정서 승인 영향 이유로 지역 요구 외면산은, 국토부, 대한항공 변화 촉구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지역 상공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28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4년에 걸친 합병 승인 기간 부산 거점 항공사의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무관심과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온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지역 경제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지역 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발표할 당시 통합 LCC의 본



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이미지.

사를 지역에 두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이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확실한 대안으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두 항공사의 결합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 요구를 외면해 왔고, 결

합 승인이 임박한 최근에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반복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의 산물인 만큼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등 자회사 통합과 관련한 부분도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공적 역할에 대한 무

거운 책임까지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결합 승인 이후 에어부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역 사회와 분명하게 약속한 만큼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 지역 상공계, 부산시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산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에어부산은 지역 기업과 부산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성장시킨 부산의 자랑스러운 기업 자산"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부산이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다면, 이는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부산의 민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강다은 TPO 신임 사무총장 임명



부산시는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신임 사무총장으로 강다은(사진) 시관광마이스 정책전문을 1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약한 달간 회원 도시 공모와 10월 24일 집행위원회에서의 전원 합의 의결을 거쳐 회장도시인 시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임기는 1일부터 3년간이다.

강다은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부산관광공사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광 마이스 분야의 전문가다. /부산=이도식 기자

남해군

'남만남해' 숙박비 할인 행사

남해군은 온라인 관광 플랫폼 '남만남해'에서 숙박비 할인 이벤트 '369 숙박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꾸준히 관내 관광업계 활성화와 관광 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시행해 온 '남만남해'가 올해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한다.

369 숙박대전은 남만남해에서 12월 한 달 동안 숙소를 예약하고 숙박을 완료한 회원들 대상으로, 예약 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약은 12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투숙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기장군

도시계획 업무추진평가 '우수'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가 진행한 '2024년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에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까지 구·군별로 추진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정보 등 도시계획 업무 전반으로, 기장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경상남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일부터 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간합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통해 국내·외 탈(脫)플라스틱 분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93억 지급

농가 6807곳에 순차적 지급 예정

완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3억 원을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4721 농가에 61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 농가에 32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미이행하면 5~20%까지 감액된다.

군은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를 했고 신청 이후엔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의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교육청, 글로벌 교육 등 정책방향 논의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오늘 순천, 내일 화순서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4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5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각급 학교 교(원)장을 비롯해 교육감, 본청 국장 및 과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5년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역점 과제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현'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 실현'으로,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발표된다.

설명회는 2부로 나뉘어 열리는데, 1부 세션에서는 2025년 전남교육청의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남형 한글 해독 지원시스템, 아이랑 한글 이랑' 등 전남형 교육 플랫폼도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부 세션은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교육'을 주제로 김대중 교육감과 교육공동체 간 정책 토크가 8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 설문으로 수집된 질문과 현장 참여자들의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전남교육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

국토부 주관 '2024 韓 도시대상'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서 우수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도시대상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개 부문(사회·경제·환경·지원체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목포시는 평가에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란 시정목표에 맞게 청년 정책 전담 부서 신설 및 정주 여건 강화, 다수의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의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은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온 점을 인정받은 수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 시가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사회·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산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합천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40개 사업서 2409개 일자리 제공

합천군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합천군은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 내고장 환경지킴이사업 등 40개 사업

에서 2409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 활동사업에 1924명을 선발해 월 30시간 활동 기준 월 29만원을 지급하며 역량 활용사업에는 375명을 선발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월 최대 76만원을 지급한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식품업계, 내수불황 타개... 인구 14.5억 인도서 노 젓는다

오리온·롯데푸드 등 11개 공장 작년 인도법인 매출 205억 성장세

롯데푸드 7개국에 8개 해외법인 인도에 330억 투입 뽀빠로공장 건립

제과업계가 내수 불황과 K푸드 열풍에 대응해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K푸드의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중국, 인도 시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제과시장은 오는 2028년 약 31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약 253조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4%가량 성장하는 셈이다.

2월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과 롯데푸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1995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에서 11개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투자로 지난해 해외 매출은 전체의 60%를 돌파했고



베트남 현지 마트에 오리온 꼬북칩과 고래밥이 진열되어 있다.



롯데푸드의 뽀빠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이 미국 LA 중심가의 The Twins 빌딩에 설치된 모습. /롯데푸드

중국 시장에서는 매출 1조원을 넘었다.

오리온은 4분기 중국 춘절 성수기를 대비해 공급량 확충에 나서는 한편 간식점, 벌크시장 전용 제품을 확대하고, 전문 경소상을 개발하는 등 영업력도 강화한다.

베트남에서도 최대 명절인 '땃'을 대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어린이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젤

리, 쌀과자 신제품으로 키즈시장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오리온 해외 법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한 곳은 러시아 법인이다. 러시아 법인은 3분기에만 매출액이 27.6% 성장한 619억원, 영업이익은 37.5% 성장한 92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체인스토어인 'X5', 주류·식품 전문 채널 'K&B'와의 거래가 정상화되고,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현지 트베리 신공장과 노보 공장의 가동률이 130%를 넘어섬에 따라 생산동신·증축을 검토 중이다.

롯데푸드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러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7개국에 8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초코파이와 뽀빠로를 비롯해 캔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과 부문 해외 매출은 2014년 5703억원에서 지난해 8005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핵심 제품인 '뽀빠로'를 글로벌 매출 1조원의 메가브랜드를 만든다는 목표로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해오고 있다.

뽀빠로는 현재 미국, 동남아, 중동 등 약 5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매출액이 약 325억원을 달성하며 출시 이후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앞장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신장한 수치다.

오리온과 롯데푸드는 14억5000만명 인구 수를 자랑하는 인도 공략에 힘쓰고 있다.

오리온은 올해 2월 320억원을 들여 초코파이 생산공장을 확충했다. 유상증자에도 적극적이다. 인도 시장에 진출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출자액은 805억원에 이른다. 올 3분기 인도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2.8% 줄어든 15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인도법인 매출액은 2020년 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까지 대폭 성장세를 기록했다.

롯데푸드는 인도 하리아나 지역에 약 330억원을 투자해 뽀빠로 공장을 짓고 있다. 내년 하반기 가동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던 뽀빠로를 직접 현지에서 생산,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7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빙과 신공장을 내년 가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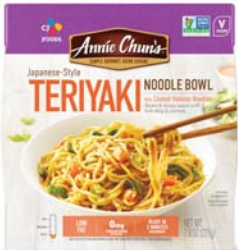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제과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해외 현지 공장 설립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스낵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시장 경쟁력이 높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시장에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우동·파스타 등 '면요리'로 글로벌 도전장

CJ제일제당, 누들사업 확대 유럽서 '비비고 우동누들' 판매 태국서 봉지면 '비비고 볶음면' 중국서 '러쿱' 브랜드 선보여



비비고 우동누들, 애니천 아시안누들, 러쿱 파스타.



/CJ제일제당

누들 제품을 전세계 각국에 선보이고 있다. 각 시장의 소비자 선호도, 문화 등을 고려해 볶음면·파스타·아시안누들 등 각기 다른 제품들로 현지 소비자를 먼저 사로잡고, 이를 발판으로 주변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 문화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태국에 봉지면인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였다. 비비고 볶음면은 ▲매운떡볶이 ▲치즈떡볶이 ▲김치 ▲K-치킨 ▲스모키K-치킨 등 5종으로, 태국 세븐일레븐, 현지 대형마트인 로투스(Lotus's)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양식 식문화, 특히 이탈리아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러쿱(Le Cook)' 브랜드를 론칭해

파스타를 선보이고 있다. 냉장 파스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 차별화된 맛품질을 구현한 프리미엄 상온 파스타를 선보여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현재까지 누적 매출 약 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러쿱은 중국 식품업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종 하나인 '식품혁신포럼 와우 푸드 어워드(FBIF WOW FOOD S AWARDS)'에서 편의식 HMR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애니천(Annie Chun's)' 브랜드로 팟타이, 차우몐 등의 아시안누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각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들로 이색적인 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딸기라떼' 한달간 150만잔 판매

토피넛라떼 등 두번째 겨울 프로모션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1월 겨울 프로모션 음료로 선보인 '스타벅스 딸기라떼'가 재출시한지 한 달 만에 누적판매량 150만잔을 기록하며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스타벅스 딸기라떼'는 국내산 설향 딸기와 부드러운 우유의 조합이 일품인 대표적인 과일 음료로 카페인 함량이 적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올해는 더 커진 딸기 과육으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전년보다 20일

앞당겨 재출시됐다.

스타벅스는 2일부터 두 번째 겨울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스타벅스 딸기라떼'와 겨울 시즌 인기 음료인 '토피넛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논알코올 홀리데이 패션 티 뱅쇼'와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 등 크리스마스 시즌과 잘 어울리는 음료와 다양한 푸드 제품들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 선보

일품진로·오크25에 적용... 가격 동일

하이트진로는 겨울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사진)'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연말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오크25, 일품진로 100주년 기념주 등 4개의 신제품과 블랙 두꺼비, 라이더 등 20여개의 굿즈를 출시한 가운데, 2024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을 강조한 이번 에디션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빨간색, 은색, 금색을 활용했다. 눈사람, 눈송이, 별 등 겨울을

상징하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계절감을 선사한다.

겨울 에디션은 일품진로와 오크25에만 적용, 2일부터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모델 이효리 효과도 연말 특수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모델 이효리가 자신의 SNS에서 일품진로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일품진로 모델로 발탁된 이효리는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일품진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신원선 기자



농심 "김해공항서 K라면 맛보세요"

'K라면 체험매장' 오픈 짜파게티 분식점 콘셉트로 꾸며

농심이 한국공항공사, CU 편의점과 협업해 김해공항에 농심 라면을 즐길 수 있는 K라면 체험매장을 오픈했다. 국내 공항 중 즉석조리 라면을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7개 지방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1500만명(1~10월)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728만명, 48%)을 차지할 만큼 해외 출입국 비중이 높다.

농심은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각

1곳씩 K라면 체험매장을 조성하며, 내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선에는 '짜파게티 분식점' 콘셉트로 꾸민 미니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짜파게티 캐릭터 '짜스', '올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여행 소감을 담아 현장에서 작성한 엽서를 실제 발송해 주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한다. 또한 농심 라면, 음료와 함께 CU 편의점에서 출시한 짜파게티 콜라보 김밥, 햄버거 등 간편식도 판매한다.

국내선에는 다양한 봉지라면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CU 라면 라이브러리' 형태로 꾸몄다. 농심 제품 3종을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온코네티라퓨틱스, 신약매출 확보하고 IPO 도전

자규보정, 제37호 국산 신약 허가 총 21개국과 기술수출 계약 맺어
“자체자본으로 연구개발 지속 가능 독자적 신약허가 이뤄낸 역량 갖춰”
네수파립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보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준 온코네티라퓨틱스 대표이사가 기업 설명을 발표하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신약 개발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점으로 코스닥에 긍정적인 신뢰를 주는 친시장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달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코스닥에 최종 상장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매출을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5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규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을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자규보정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지난 10

금을 수령했다. 이어 올해 5월과 9월에는 각각 인도, 멕시코 현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재 자규보정이 기술수출로 진출한 국가는 총 21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준 온코네티라퓨틱스 대표이사는 “높은 곳을 추구하되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자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온코네티라퓨틱스만의 장점을 소개했다.

김 준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 온코네티라퓨틱스가 높은 곳을 추구하는 바탕에는 신약 상업화로 거둔 풍부한 자금력이 성장 기반으로 있다”며 “자규보정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향후 외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자본’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임상 2상과 3상까지 진행하며 독자적으로 신약 허가를 이뤄낸 독자적인 역량을 갖췄다”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국외로 내보내지 않고 국내에서만은 우리 힘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처럼 신약 상품화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임상 단계를 줄여 품목허가를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도록 해 기

술수출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후속 신약 후보물질로 파프-탄키라제 이중 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완성형 기술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네수파립 개발을 위한 임상은 현재 책정임과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준 대표이사는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의 미래 추정 수익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상장 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공모가 산정을 통해 시장에서 네수파립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많은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55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희망가 범위는 단가 기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총 공모금액은 248억원에서 279억원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요예측은 12월 3일까지 진행된 후, 같은 달 9일과 10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이 진행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퍼펙팅 제품군 리뉴얼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퍼펙팅 트윈케어 이크’와 ‘퍼펙팅 스킨커버’를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두 제품에는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스킨케어링 메이크업’ 기술력이 집약됐다. 설화수 대표 메이크업 제품인 만큼, 커버력과 지속력이 특징이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퍼펙팅 트윈케어 이크는, 잡티, 모공과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삼중 커버 파우더를 함유한다. 이 성분은 피부 친화력이 높아 건조함 없이 메이크업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퍼펙팅 스킨커버는 크림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다. 매화를 활용한 향산화 성분을 비롯해 설화수 독자 성분인 ‘자음단’, 치마버섯 유래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한 데 담아 보습력까지 갖췄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은 완성도 있는 커버 메이크업과 함께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원생’ 히알루로닉 스쿠알란 세럼·크림 신제품 선보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자회사인 원생에서 ‘히알루로닉 스쿠알란’ 제품군 2종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수분에 오일 보습막이 더해진 이중 제형인 ‘세럼’과 젤 형태인 ‘크림’으로 출시됐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히알루론산과 스쿠알란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해 피부 보습 기능을 갖췄다.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피부 밖을 관리해 피부 유수분 균형까지 맞춰준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지엘프로’, 혈당조절 건기식 시장 장악력 확대

한 달 만에 2만 세트 판매 돌파
22억 매출... 시장 약 45% 차지
출시 초기 대비 신규 고객 62% ↑



GLPro더블트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지난 10월 출시한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가 한 달 만에 2만 세트 판매를 돌파하며,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혈당 조절 건기식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585억원으로 월 매출액 환산 시 49억원 정도다. 정관장의 ‘GLPro’는 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존 혈당 조절 건기식은 ‘구아바잎 추출물’ 등 고시형 원료가 대부분으로 약 88%, 그리고 ‘HAC01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개별인정형 원료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관장은 신규 고객이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GLPro’ 출시 초기(10일차) 대비 한 달 매출의 신규 고객 비율은 약 62% 증가했다. 기존 정관장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도 ‘GLPro’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GLPro’는 정관장 흡삼을 주원료로 A세대(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니어 연

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혈당 집중 케어 제품 ‘GLPro 코어’와 혈당과 동시에 체지방까지 케어할 수 있어 2030에게 인기 있는 ‘GLPro 더블트’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KGC인삼공사는 12주 인체시험결과 정관장 흡삼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감소, 그리고 GLP-1(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를 조절하는 등 6가지 혈당 바이오파커의 유의적 개선을 확인했고 지난 8월 식약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종근당 ‘브레이닝 캠페인’, 디지털광고 대상

제2회 韓 공공브랜드 대상

종근당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디지털광고 부문에서 브레이닝 캠페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은 올해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브레이닝 캠페인’을 펼치며 기억력 저하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인지능력 개선의 중요성을 알렸다.

종근당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와 일상 속 기억력 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캠페인 주제는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솔루션’으로 브레이닝캡슐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종근당의 브레이닝캡슐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인삼40%에 탄올 건조엑스 100mg과 은행엽건조엑스 60mg를 함유한다.

종근당에 따르면 브레이닝캡슐은 임상시험을 통해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을 개선하는 효능을 입증했고, 말초동맥 순환장애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기존 PPI 약물 단점 개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칸듀오’ JW중외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및 위·십이지장궤양 치료 복합제 ‘라베칸듀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라베칸듀오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인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복합제다. 적응증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 요법 등이다.

라베칸듀오는 기존 PPI 약물의 단점으로 알려진 느린 약효 발현 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복용 후 약 30분 만에 증상을 완화한다. 기존 PPI 치료제의 경우 체내에서 흡수되기까지 2~4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러한 개선점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으로 쓰이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 이 제품은 탄산수소나트륨을 비롯해 보조 제산제인 수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을 조합해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 분해를 방지한다. /이청하 기자

골든블루 2030 소비층 겨냥 스마트오더 판매 진행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가 ‘골든블루 쿼츠(GoldenBlue Quartz)’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위스키를 음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가정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층 역시 젊은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지난 10월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골든블루 쿼츠’를 선보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오더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CU, 이마트24, GS25 등 주요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카카오모빌리티, 서울 관광 활성화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관광재단과 지난달 29일 서울 중로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우열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오른쪽)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카카오모빌리티



Sh수협은행, 아름다운 가게에 임직원 물품 기부

Sh수협은행은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Sh수협은행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임연숙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오른쪽)이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에게 임직원 물품을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CJ프레시웨이,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솔루션 제공

CJ프레시웨이가 ESG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동행주방'을 통해 연내 사회복지시설 7곳의 급식 조리실에 안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CJ프레시웨이 소속 안전 전문가가 시설에 방문해 인터뷰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주방 내 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독고, K급 소화기 등 각종 주방 안전 설비와 교육 컨설팅을 맞춤 제공한다. /CJ프레시웨이



LG헬로비전, '마음나눔 더블기부' 캠페인 전개

LG헬로비전이 임직원과 누리꾼이 함께한 '마음나눔 더블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은 8800만원의 기부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LG헬로비전은 직원들의 참여로 총 44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누리꾼도 이에 화답해 3주 만에 더블 매칭을 이뤄 총 88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LG헬로비전

넥슨 "게임을 통해 온기 나누세요"

넥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유저와 함께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따뜻함을 전하는 '넥슨 히어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넥슨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게임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은 '넥슨 히어로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라시아 전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엘소드', '바람의나라' 등 총 22개의 넥슨 게임에서 진행되며 이벤트 진행 일정은 게임별로 공지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 기탁... "새 희망 움트길"

전자 등 23개 관계사 참여
26년간 성금 8700억 기탁

삼성그룹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삼성은 2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삼성은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연말 성금 규모를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 전달식에서 삼성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23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기부에 참여한 삼성 관계사들은 대외 기부금 출연을 위한 각 사별 승인 절차를 거쳤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약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 네번째)과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왼쪽 세번째), 박범철 삼성전자 DS부문 사원대표(왼쪽 두번째), 서준영 삼성전자 DX부문 사원대표(왼쪽 다섯번째),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오른쪽), 제현웅 삼성글로벌리서치 CSR 연구실장 부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열린 연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회사 기금 외에 23개 관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진행된 삼성 '기부약정 캠페인'에 참여해 내년 한 해 동안의 금전 기부와 재능 기부를 미리 신청했

다. 임직원들은 매년 기부약정 기간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삼성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삼성은 26년간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탁한 누적 총액은 8700억원이다. 2012

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이웃사랑성금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대한민국광고대상

현대차, '밤낚시' 3관왕 달성

필름 크래프트·PR 등 수상

현대자동차와 배우 손석구,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공동제작한 단편영화 '밤낚시'가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현대차는 2일 밤낚시가 한국광고총연합회 주관 '2024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필름 크래프트와 마케팅(PR)부문 대상, 브랜드 콘텐츠 부문 금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1994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약 20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된다.

밤낚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정서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정서를 다룬 단편 영화다. 밤낚시는 해외 유수의 영화제 등에



현대차 단편 영화 '밤낚시'.

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제28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선정 국제 단편 경쟁 부문 '최고 편집상'을 수상했으며, 1월에는 미국 선댄스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셰프 댄스'에 상영됐다. /양성운 기자 ysw@

홈플러스, 옥외 부문 공동대상

홈플러스는 지난 4월 광고회사 에이치에스애드(HSAD), 한화손해보험과 협업해 선보인 옥외광고가 '2024 대한민국광고대상' 옥외 부문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스타피카소 빌딩 LED 대형 전광판에 모델 김수현이 등장하는 광고를 걸고, 불가 안정화와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자사의 핵심 가치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과 호흡을 맞췄던 배우 김지원이 등장하는 한화손해보



배우 김수현의 홈플러스 옥외광고와 배우 김지원의 한화손해보험 옥외광고 이미지 사진 /홈플러스

험 브랜드 광고를 길 건너편에 배치해 마치 극 중 캐릭터 두 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화갤러리아, 육아 동행 지원금 신설

출산가정 1000만원 지급

한화갤러리아가 새해부터 출산가정에 육아 동행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에 따르면, 육아동행 지원금 지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화유통·서비스 부문인 갤러리아와 호텔앤드리조트, 한화푸드테크, 아쿠아플라넷 등 자회사 전 직원이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신설된 육아 동행 지원금 제도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횡수에 상관없이 출산 때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쌍둥이 가정의 경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지원금 제도가 단순한 출산 축하를 넘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회사가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을 맡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 대다수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유통·서비스 부문 전 계열사에 파격 지원을 약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 인사**
-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김희열 ▲오창열 ◇상무 승진 ▲강병우 ▲김태영 ▲박재성 ▲손용훈 ▲송용준 ▲이민곤 ▲조영일 ◇Master 승진 ▲구경모
 - ◆에코프로 ◇부사장 승진 ▲에코프로 이명 이규봉 ◇전무 승진 ▲에코프로 이송환 이수호 김순주 ▲에코프로비엠 방한민 최윤영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강동현 ◇상무 승진 ▲에코프로비엠 이현진 오동구 공보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성준
 - ◆메트라이프생명 ◇전무 ▲Risk management 담당 김성희 ◇전무 ▲GA채널 담당 조기상 ◇이사 ▲CPC 담당 객재일 ▲Chief Actuary 김지영
 - ◆호반그룹 ◇승진 ▲호반그룹 부사장 김준석(호반그룹 전략기획실장 / 대한전선 경영총괄 임원) ▲호반그룹 상무 서동진 ▲호반건설 상무 이규재 ▲호반건설 상무부 오준균 ▲호반건설 이사 김진기 ▲호반건설 이사 유공상 ▲호반산업 전무 김용일(건설안전부문대표) ▲호반산업 이사 송진원 ▲호반산업 이사
- 김주철 ▲대한전선 전무 백승호 ▲대한전선 상무 남정세 ▲대한전선 상무보 이균수 ▲대한전선 상무보 홍동석 ▲대한전선 이사 한창석 ▲대한전선 이사 최승호 ▲대한전선 이사 한상규 ▲호반호텔앤리조트 상무부 고규범 ▲호반서서울(서서울CC) 상무 이은래 ▲삼성금융거래소 상무 이영만 ▲선임 ▲호반건설 개발사업실장(상무) 김시한 ▲호반호텔앤리조트 리조트부문대표(전무) 강신주 ▲호반호텔앤리조트 퍼시픽리움 총지배인(이사) 박광수 ▲호반호텔앤리조트 스포라스리움 총지배인(이사) 김윤환 ▲호반호텔앤리조트 포레스트리움 총지배인(이사) 이근수 ▲호반프라퍼티 대표이사(전무) 김동남
- ◆코웨이 ◇승진(전무) ▲김형권 1사업 본부장
- 부음**
- ▲정복준씨 별세, 정승원(한울바이오파마 대표)씨 부친상 =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5시, 02-2227-7500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트럼프 포비아는 허구다



한용수의
돌직구

요즘 화두는 '트럼프'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골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이다.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도 면접이나 논술 소재로도 트럼프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뱉은 말들은 무시무시해 이른바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수출국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글로벌 경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무역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전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트럼프는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해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세 인상 방안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이다. IEEPA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보·외교·경제에 비상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무역법은 외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미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포비아에 빠진 양상이다. 우리 기업 약 절반은 내년 긴축 경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중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초를 '긴축경영'으로 계획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 중 긴축 경영 계획을 세운 곳은 61%로,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된 요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이 꼽힌다. 여기에 '미, 중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기업들의 투자를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경총 조사 응답 기업의 82%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이다. 반면,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본 기업은 7.5%에 그쳤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포비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각국 정부가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할 경우 트럼프의 공약 의지는 더 심화하는 악순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1기 때와 달리 연임이 없는 시간적 제약, 그의 공약과 다른 공화당 내부 사정,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모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hys@metroseoul.co.kr

시골 청년 70대



김연세의
정확사회부

10년 전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는 마흔살(40.0세)이었다. 남자들(38.8세)은 30대 후반으로 더 젊었다.

이후 10년간 다섯 살 넘게 더 먹었다.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국민들 나이의 평균값은 45.3세까지 치솟았다. 역대 가장 많다. 남자(44.2세)는 40대 중반에 달했고 여자(46.4세)는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전남과 경북 여성 거주민의 경우 지난달 평균 나이가 각각 50.7세, 50.4세까지 올랐다.

TV프로그램 00내고향을 보면 농촌에도 젊은이는 있었다. 80대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장에 가서 판다. 90대 할머

니·할아버지도 간혹 출연한다. 그리고 시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은 70세대. 이들이 바로 현재 국내 농촌지역 젊은이들이다. 60대·50대는 화면 속에서 보기도 힘들뿐더러 동네에서 어린이 취급 받는다.

이 분들마저 떠나면 어찌 될까. 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떨지...

11월 말 기준 전국 총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9%에 달했다. 5122만 명 가운데 1019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한두 달 내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 기준 노인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당시엔 그리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14.2%)가 65세 이상보다 많았다. 현재 총인구에서 유소년(10.7%)은 역대 최소까지 내려왔다. 노인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도3촌'(나출은 도시, 사출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국 각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시골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책이다.

이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이른바 4도3촌형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이든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kys@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1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라 밖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4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할 일도 많다. 60년생 다툼이 있으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라. 72년생 결과가 보이나 적극적으로 행동. 84년생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



3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마음이 슬픈 하루. 49년생 성실하다 보면 여제의 고난이 오늘 웃음을 준다. 61년생 이만하면 원더풀한 인생. 73년생 부족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은 논다. 85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



38년생 산행도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2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74년생 정확한 거절을 말해야 관계를 좋게 한다. 86년생 망설이다가 시간만 간다.



3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인색하지 말 것. 5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하게. 63년생 몇 년 전 연애편지를 생각하지 말라. 75년생 이성을 만나 감정절제를 편안히 해야 만남이 연결. 87년생 즐거움 일이 넘치니 감사한 날.



4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다 해소되는 기분. 52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보관해 두어야 한다. 64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 청소로 분위기를 정리. 76년생 이렇듯 어려하며 저런들 어찌하리. 88년생 구두쇠 작전보다는 힘을 실어줘라.



41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확신을 하게 하니 주의. 5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제가 새우젓 얻어먹는다. 65년생 예상외의 초대로 즐겁다. 77년생 절이 싫으면 떠나든지 아니면 불평 말든. 89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



42년생 변화가 있어도 미미한 수준. 54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66년생 직장에서 말을 조심해야 대접받는다. 78년생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미생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90년생 웃을 준비를 하고 상담에 임하라.



43년생 그림과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운. 55년생 조금만 결정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67년생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된다. 79년생 요령 찾다가 되는 일이 없으니 학창시절 의욕으로 도전. 91년생 행복에 취해서 주변을 소홀히 한다.



44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행하라. 56년생 혼란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보라. 6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80년생 제후자보다는 일단 은행에 저금으로 다시 자금계획을 설정해보라. 92년생 이제라도 배우야 문제가 해결될 터.



45년생 바쁘다 보니 소지품과 휴대폰 분실에 유의. 57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우자. 69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뒤라. 81년생 친구가 여행 가지는 변화가 있어도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93년생 배우자에게 기쁜 일이.



4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생각이 빛났다. 58년생 이기심을 버리고 가족이라도 통과하는 분명히. 70년생 용기가 역사를 만든다. 82년생 황재수는 허상과 같기도 하니 담 흘려 노력하다 보면. 94년생 언제나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날.



47년생 깊이 생각하면 나날 길이 절로 보인다. 59년생 서두르다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71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치른다. 83년생 용띠와 거래에 행운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둘 것. 95년생 저축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라.



김상회의四季 코스닥은 나스닥은

일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육체의 건강함과 정신적 책임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며 경제적인 용어를 알아야 재물을 벌어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주식투자를 시작하는데 처음 용어를 잘 몰라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나스닥과 코스닥이다. 왜 이름이 비슷한지, 어떤 종목이 거래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지 헷갈린다. 먼저 나스닥을 보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주식시장이다. 나스닥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등록되어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왜 벤처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자본력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즉 벤처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벤처기업이 중심이었지만 나스닥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전 세계 첨단기술 업체들이 등록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처음에 장외시장으로 시작한 나스닥은 1971년에 개설됐다. 나스닥의 특징은 기술주 위주로 상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술주는 IT전자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을 말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재정이 적자인 회사들도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성격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뒤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 첨단기술 기업들이 모두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은 한국의 기술주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나스닥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도 같다. 코스닥이라는 명칭도 미국의 나스닥을 한국식으로 만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1	8	1	9	9	2	8
1	8	2	9	6	7	9	8	1
9	8	9	1	8	2	1	6	7
2	1	8	7	9	9	8	2	6
8	6	7	1	8	1	2	9	9
9	9	1	2	6	2	8	1	7
1	2	8	2	1	6	8	9	9
1	2	6	9	9	8	7	8	1
8	9	9	8	7	1	6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8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책보고, 팝업스토어 전환... 헌책방 “성공할 수 없을 것”

위기의 공공헌책방

<下> 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시, 헌책방 33곳 철수 요청
낙후된 운영 개선 내세워 통보

헌책방들 “일방적이고 비현실적”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서울시의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를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운영 실적이 낮은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헌책 판매’ 이미지를 탈피하기로 하고, 중고 도서 위탁 판매를 맡긴 서점 33곳에 철수를 요청했다. 헌책방 주인들이 당장 수천 권의 책을 가져다 둘 곳이 없고, 도난방지태그가 붙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입고된 서적을 모두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은 입점 서점들이 시의 불합리한 정책을 규탄하며 도서 회수 거부 입장을 내놨다.

전국책방협동조합·평화서점연합회 등 책보고 입점 서점들은 “과거 서울도서관은 도서 유통의 또 다른 축인 헌책방 업계가 침체된 것을 양지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문화 서울의 한 면모를 진작시키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서울책보고 사업을 설명하면서 헌책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 책보고 운영의 어려

움을 들은 입점 서점들은 2021년 말 2차 재계약 때 판매 수수료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데 동의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했다”면서 “근래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함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서서히 다른 분야 도서로도 관심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중이었는데 한 번의 공청회나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도서 반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도서 위탁 판매를 맡긴 서점들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의 부조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중고 서적 반품 불가의사를 내비쳤다. 책방들은 ‘도난방지태그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과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이유로 입고된 책들을 도로 가져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책보고 사업에 참여한 ‘공씨책방’의 사장 장화민 씨는 “책을 둘 곳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 도난방지태그는 서울

책보고에서는 괜찮지만, 책방에 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도서관들이 폐기 처분한 책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택 붙은 건 손님이 싫어해서 가격을 아주 싸게 책정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시는 약 1700만원을 들여 가격표 겸 도난방지태그 스티커를 떼서 책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40년 넘게 책방을 운영해온 A씨는 “도자기가 깨져 금이 가면 백만원 하던 게 만원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며 “스티커 떼면 100% 표시 하는데 어떤 바보가 그걸 가져가겠냐”고 따져 물었다.

입점 서점 중 하나인 ‘숨어있는 책’의 대표 노동환 씨는 “스티커를 떼는 건데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코팅이 울거나 찢어져 100% 회복되지 않는다. 코팅이 안 된 책은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갖

고 왔는데 이 상태면 1000~2000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책보고에서 위탁 판매 중인 서점들은 시에 현 체제(헌책 판매 중심)에서 입고 방식 등을 개선해 운영하거나 책방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직접 책보고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입고된 책을 전량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책보고 참여 서점들의 요구를 전부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소수의 서점이 공간에 책을 납품하며 판매하는 구조가 되면 슬럼프가 된다”면서 “지역 서점 중 헌책을 파는 일부 책방에만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관장은 “헌책을 구매하는 방법이 YES24, 알라딘에서 당근마켓 등으로 바뀌며 판로 자체가 달라졌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계속 그분들이 고집 피운다고 해서 헌책방 위주로 돌아가면 이 책문화 공간이 활성화되겠느냐”면서 “서울의 600여 개 서점이 좋은 제안을 갖고 서울책보고에서 책을 팔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는 거다. 소수 33개(서울책보고와 판매 대행 계약을 맺은 서점 수), 그중에서도 서울 내 25개 헌책방만 혜택을 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시는 기존 헌책 판매 중심의 서울책보고 운영 방식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지금까지 33곳의 헌책방이 중고 서적을 파는 게 아닌 서점여

러 개가 돌아가며 일정 기간 헌책, 새책 구분 없이 보유한 도서들을 큐레이션(선별)해 판매하는 식이다.

오 관장은 “더현대 같은 백화점에서 서점 팝업스토어를 하는데 매출이 엄청나다. 단순히 책 판매가 아니라 경험이 같이 녹아나야 한다. 그래서 서울책보고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책문화를 높이 경험과 결합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 거다”고 자신했다.

헌책방 사장들은 시의 팝업스토어 구상이 현실성 떨어지는 장밋빛 계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씨는 “서울책보고 팝업스토어는 경의선 책거리 만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거다”며 “헌책방은 집집마다 책이 다른데 독립서점은 다 같은 새책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같은 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놔 봐야 새로운 게 뭐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최근 어떤 새책방에서 ‘인생샷은 찍어가셔도 책샷은 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봤다”며 “거기도 우리가 똑같은 거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책을 안 산다”고 토로했다.

노 씨는 “새책들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 제한이 들어가 팝업스토어 행사 성공할 수 없다”며 “또 인터넷으로 사면 10%를 싸게 해준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릴진 몰라도 책 판매는 안 될 거다”고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고립·은둔 없는 도시로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 업무협약 체결
‘외로움안녕120’으로 24시간 상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일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복지재단, 9개 기업·단체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복지재단, 9개 기업·단체는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 협력망 구축 ▲고립·은둔가구 발굴·지원 협력 체계 마련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교보문고, 당근마켓 등은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제별 다양한 모임을 구성·활성화하고 챌린지 행

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풀무원식품과 대상은 외롭고 고립된

시민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 마음편의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식료품을 지원한다.

hy는 사회적 고립·은둔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레시매니저(건강음료 배달원)가 고립·은둔가구를 찾아내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고립·은둔가구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 업체인 BGF리테일, GS리테일, 우아한형제들, 한국빨래방협회와 24시간 외로움 관련 상담이 가능한 ‘외로움안녕120’을 홍보하고, 고립·은둔가구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현정 기자

평택,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장선 시장, 재난대책본부 긴급 소집

평택시는 1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지난 11월 27일부터~28일까지 양일간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

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일 현재 이로 인하여 가집계된 피해액만 농업피해 299억원, 축산피해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피해집계가 예상된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650여 건의 사유재산 피해와 가로수 전도 등 600건, 야외체육시설 4건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공무원 AI 활용 본격화... 행정 효율성 UP

서울시, 175명 신기술 이용료 지원

지원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는 20개 부서와 175명의 직원에게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했다. 인공

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에는 1802명이 참여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AI 기술을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도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7:14

12월 3일 (화)
음력 : 11월 3일

수도권 날씨
-4 ~ -3°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6/3, 동두천 -6/3, 가평 -6/4, 파주 -7/3, 서울 -4/3, 양평 -5/3, 인천 -4/4, 수원 -3/3, 용인 -3/3, 평택 -4/4, 백령도 -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대만 무기 판매에... 中 “단호한 조치로 반격할 것”
▲“뺑집 열었다”... 식량난 속 가자지구 뺑 사려는 인파에 3명 압사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북한, 러시아에 장거리 포 100문 전달”
▲일본, 2일부터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마이너 보험증’ 전환



▲러 ‘시베리아 힘’ 연결 중국 가스관 개통... 年 공급량 380억㎥
▲독일 폴크스바겐 노동자들, 경고 파업 돌입 예고 /사진 뉴시스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식품업계
내수불황 타개
인도서 노 젓는다
L1



Life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 기탁
L4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숲과 정원을 체험하고 있다.

/두나무

가상의 숲에서 느끼는 자연... 디지털 기술로 치유 이끌다

두나무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세대를 키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SG 경영을 위한 3가지 키워드로는 나무, 청년, 투자자 보호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두나무만의 기술력을 활용해 산림 복원, 식물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생물 다양성 보호 기금 조성, 산림을 통한 치유 프로젝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정보와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 표준 룰과 건강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두나무

◆NFT와 생물의 고유성·대체불가성, 기술로 연결하다

두나무는 사명에서 착안한 ‘나무’를 주요 ESG 키워드로 삼고 지구 생태계 보존 및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나무라는 키워드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기후 변화, 멸종 위기 식물에 대한 대중 인식 확대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다. 지난해 두나무는 환경부 산하 4개 기관과 함께 ‘기후 변화 생물 지표(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CBIS)’를 NFT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후 환경재단·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생물의 희소 가치 인식 강화를 위한 ‘시드볼트 NFT 컬렉션’을 출시했으며, 자생 수종 보존팀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은 NFT가 가진 고유성, 대체불가성이 식물 종의 존재 가치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 보존 시설인 한수정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 이미지를 바탕으로 NFT를 제작, 업비트 NFT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이다. NFT를 보유한 홀더들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하며 조성된 기금은 실제 식물 식재로 이어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환경 이슈에서 기술이 ‘과괴’의 상징이 아닌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대표적 선례”라며 “기술과 환경의 공영을 선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 기금을 토대로 조성된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 개원식에서 두나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환경재단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SG 키워드 ‘나무’... 친환경 실천 앞장 기후변화 생물지표, NFT로 제작·배포 가상 나무, 현실로... ‘회복의 숲’ 캠페인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 ‘치유정원’ 오픈

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지난 6월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를 조성하며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1을 마무리했다. 두나무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는 ESG의 참여 주체를 기업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NFT 기술의 단순 구현을 넘어 실제 환경 보호 활동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드볼트 NFT 보유자(홀더)들이 생물 다양성 관련 미션에 참여해 씨앗 NFT를 식물 NFT로 키우고, 이 결과에 따라 식물 보전지가 구현됐다. 3개월간 총 1만 121명이 참여하고 1278명이 최종 미션에 성공, 생태계 회복을 위한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조성에 기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을 통한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조성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술과 환경이 더이상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시즌 2에서는 디지털 디자인&아트 회사 디스트릭트와 협업, 아르떼뮤지엄 부산에 시드(SEED)관을 구현하고 프로젝트의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아르떼뮤지엄 부산 시드관에서 진행됐으며, 시즌 2의 메인 테마는 ‘무궁화’였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미션을 통해 현장에서 관람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NFT로 바로 소장할 수 있다.

더불어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2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을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 바다 플로깅’을 주최해 쓰레기를 주워오면 아르떼뮤지엄 부산 입장권과 다채로운 제로웨이스트 선물을 제공하는 ESG 활동을 펼쳤다.

◆가상 나무가 현실로... 기술로 실현하는 ‘회복의 숲’

두나무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나무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진행한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회복의 숲’ 캠페인은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시민 참여형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2023년에는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내 마련된 가상의 숲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에 나무 두 그루가 식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약 2만명이 참여했고, 가상의 숲에 총 1만 5000그루 나무를 심어졌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됐던 만큼 팬데믹 시기에 메타버스 내 심은 가상 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 등에 실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올해는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만의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탄생시킨 가상의 숲이자 치유 프로그램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의 리브랜딩이다.

이 대표는 “세컨포레스트의 지향점은 자연에서 사람, 사람에서 다시 자연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며 “두나무만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파리 올림픽서 최초 쓴 하산·테보고,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
▲NBA 클리블랜드, 보스턴 꺾고 선두 굳혀...미첼 35점 맹활약 /사진 뉴시스

▲‘서울빛초롱축제’, 돌아온 청계천서 ‘세계 4대 겨울축제’ 굳히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 괘불의 미’ 충청·서울·경기지역 발간



▲추락하는 EPL 맨시티...리버풀에 0-2로 져 7경기 무승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2회 연속 라운드 MVP /사진 우리은행 우리WON